安東權氏宗報

陵洞春秋

http://www.andongkwon.or.kr

ISSN 1739-9203 05

제101호

2007년 5월 1일 화요일 · 매월 1회 1일 발행
음력 丁亥年 權氏紀元 1078년 3월 15일 乙未

편집인 겸 발행인 權五焄 · 인쇄인 洪政旭

발행소:주식회사안동권씨종보사 · 경북안동시북문동24-1 · 760-120
전화 (054)857-7705 · 857-7713~7714 전송 (054)857-7715
서울분사: 서울종로구필운동288-1 · 110-044 · 전송 (02)738-8935
전화 (02)723-4480 · 732-9139 · 735-7179
등록: 경북라-01055호[99.4.7] e-mail :webmaste@andongkwon. or. kr

주간 權琪奉 · 기자 權奇允 / 편집고문 權海玉 · 權宅鎭
편집위원 權在琮[常勤] · 權海兆 · 權五達 · 權容根 · 權奇奭 〔客員〕

종원회비1년2만원 / 계좌: 우리은행1005-601-070005(주)안동권씨종보사

宗 說

文語와 口語

사람 사는 세상에서 시비가 일거나 화제가 생겨 여러 말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을 언거언래言去言來라 한다. 또는 설왕설래說往說來나 언삼어사言三語四라고도 한다. 이럴 때 ‘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는 속담도 있다.

사람이 말을 않고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이처럼 일상 쓰는 말이 한쪽에서 먼저 나갈 때 고우면 다른쪽에서 곱게 또는 더 곱게 나와서 그렇게 주고받다가 과공過恭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낯을 붉히고 다투는 일은 일어날 일이 없어지는 대신 겸양과 교감의 미덕이 흐르게 된다. 반대로 먼저 나가는 말이 거칠면 되돌아오는 말이 더 거칠고 그러기를 몇 차례 못하여 고함과 욕설이 터지다가 마침내 이성을 잃는 사태로 번지기도 한다.

이렇게 말은 그 한번 나가는 단초가 중요하다. 그런만큼 거기에는 또 그만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기가 한번 배앝은 말의 책임으로 목숨까지 내놓게 되기도 하니 일언一言이 중천금重千金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일 터이다.

이러한 사람의 말이 누구의 입에서 소리로 나와 상대의 귀에 들어가는 데에 그치는 것을 구어口語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글로 써 활자화하는 것을 문어文語라 한다. 그러면 전파를 통해 나가는 말은 구어인가 문어인가. 아마 유무선 전화로 오가는 말은 구어일 터이지만 공중파로 나가는 소리는 미상불 문어같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같다. 왜냐하면 구어는 그래도 가벼운 편이고 문어는 더욱 무겁기 때문이다.

구어로 하는 소리는 일회성에 그쳐서 제3자가 들어 증거하거나 누가 녹취라도 해놓기 전에는 존안성存案性과 공중성公衆性이 없다. 그러나 문어는 그렇지 않다. 특히 공중파 같은 게 아니고 필기나 활자기록으로 남은 것일 때는 영구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문어를 잘못 구사하게 되면 구어에서의 고함과 주먹다짐보다 더한 송사訟事와 필화筆禍로 번져 걷잡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구어든 문어든 말을 우아하게 하면 사람 사이의 교감이 원활해지고 우의友誼가 도타워진다. 남의 좋은 것만 말하고 나쁜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 남의 말을 좋게 하자 ’는 표어가 있는 것도 보았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다툼과 증오가 없는 낙원이 되련만 또한 그렇게 되면 세상에 언론의 비판 기능이 없어져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세상에 좋은 말만 충만하고 나쁜 말이 없다면 언론의 비판 기능도 필요 없어져서 좋은 이야기와 말만 다투어 쓰다가 언론이 세인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바 되지는 않을까.

우리 문중 사회에서도 구어로든 문어를 써서든 하고 많은 말이 오가고 있거니와 이는 앞으로 더많이 오갈 것이다. 이렇게 오가는 말이 먼저 문어에서부터 조금씩 고와진다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헛일이나마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본다.

▲능동재사추원루에서시조태사공춘향의집사분방례를행하고있다<관련기사2면>

▲캄보디아와월남여행중하노이의호지명묘胡知明墓앞에선권병홍안숙공종회장<관련기사8면>

안동권씨대동세보의 CD롬이 나왔습니다

2004년에‘ 한글판漢字병기電算인터넷화 ’安東權氏大同世譜가 완간된 이래
2년 동안 수많은 오류를 바로잡고 보완 추가한 CD-ROM 이 마침내 2006년 9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CD-ROM으로 매년 새로이 발전한 족보CD를 교환받게 됩니다!

1년동안신규수단을받아입록하고주기를수정보완하여매년7월1일자로전자족보는끊임없이업데이트됩니다. 한번CD-ROM을구입하여소장하신분은본사의홈페이지를통해소정의수수료를 불입하시면 새로이 발전한신판의 대동보 CD롬을 매년 염가로 소장하실수가있습니다. 또한필요에따라매년교환받아도되고2, 3년또는4, 5년에한차례씩교환받으셔도됩니다.

안동권씨족보의 표준 한글판 한자병기안동권씨대동세보가 또 진화했습니다!

안동권씨대동세보는매년한번씩업그레이드됩니다. 1년동안받은신규수단과기존내용의수정보완작업이익년6월말로완료되어인터넷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 이미한글판대동세보서책을소장하셨으면많은부분이보정되었으니다시한번비교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전자족보의 총아 CD-ROM은 이렇게 보급을 합니다!

▶대동세보의 CD롬은전33권이3장으로나뉘어나옵니다. 1장은종파 · 부호장공파에서부터, 추밀공 · 복야공파를제외한13대파가다들어있고, 2장은추밀공파, 3장은복야공파입니다.
▶1장의값은 30,000원이고2장을사시면5만원, 3장을모두구입하시면7만원이됩니다.
▶기왕에대동세보 서책을 구입하신 분께서는, 파질 또는 단질에는 해당 CD롬1장을, 전질에는 전체CD롬3장을기증하되송달료등으로개당1만원을받습니다.
▶기증하는 CD롬1장외에추가로1장이상을동시구입하실시는기증하는1장의송달료1만원은삭감됩니다.

안동권씨대종회 · 안동권씨종보사
02) 723-4480 · 732-9139